

# 전남 서·남부 11곳 지진 위험도 등급 상향 조정

### 소방방재청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광주·전남 안전지대 아나 해저지진 513건 중 264건 서해서 발생...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해야

◇전남 서남부 11개 시·군, 지진위험도 등급 상향=소방방재청은 16일 건축물·댐·교량 등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에 활용하는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하고 '지진 II 구역'으로 설정했던 전남 서·남부 지역 11곳을 '지진 I 구역'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방방재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997년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지진위험도 평가 기법이 발전한데다, 전남을 둘러싼 서해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 등으로 지진구역과 지진구역계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소방방재청 설명이다.

소방방재청의 국가지진위험지도 수위에 따라 기존 '지진 II 구역'이던 무안·신안·완도·영광·진도·해남·영암·강진·고흥·함평·목포 등 11개 시·군이 '지진 I 구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지진 II 구역'은 흥천·철원·양구 등 강원 북부와 제주만 남게 됐다.

이번 지진 위험도 등급 조정은 전남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상청이 지진계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발생한 513건의 해저 지진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64(51.5%)건이 서해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빈도도 지난 2011년 13건, 2012년 11건에 이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49건이 발생하는 등 잦아지고 있다.

지난 4월21일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광주·전남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광주도 지난 6월 8일 광주시 동구 동남동쪽 3km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 지난 1978년 이후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보강 불가 피=국가지진위험지도가 새로 바뀌면서 내년 7월부터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건립 시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

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상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건축물은 공항·저수지·댐·다리·터널 등 종류만 31개에 이른다.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바뀐 조정안에 맞춰 내진설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지진등급이 상향 조정된 11개 시·군의 내진설계 대상건물은 1만4695동. 내진설계기준이 도입되기 전(1988년 이전) 건물을 제외한 3729동의 경우 관련 기준에 맞춰야 한다.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비해 예전 건축물의 경우 적지 않은 보강 비용

을 들여야 할 처지다. 민간 소유 건물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변경된 지진 위험도 등급에 따라 건물의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진공학회 관계자는 "현행 법정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9개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면서 "전담부처를 지정해서 내진설계기준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림기자 halo@kwangju.co.kr

정부가 전남 지진 위험도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지진 발생 현황을 반영한 조치로, 광주·전남 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장, 지진 위험도 등급 상향 조정으로 해당 지역 내 관련 시설들이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을 새롭게 보강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 등산로·숲길부터 정책 정보까지 'OK'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행정 3.0' 추진... 정보개방·공유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이는 구상 나무는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학명(Abies koreana)에도 한 국(코리아나)이 들어가 있다.

지리산에는 멸종위기 2급에 속하는 담비와 반달가슴곰, 황구렁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제작한 백두대간 생태지도는 이같은 국내의 다양한 산림·식물 정보를 담고 있다.

야생 동·식물이 발견된 위치가 좌표값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위성정보와 항공촬영사진을 활용해 백두대간 구석구석까지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국내 모든 숲길 명칭, 내력, 주변에 서식하는 꽃, 나무 이름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산림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산림행정 3.0'에 따른 조치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도 국민참여율을 높이고 부처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산림행정 3.0' 정책을 진행 중이다.

당장, 현재 6개 분야, 82개 업무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산림분야 사전정보공개 범위를 임산물 가격조사 결과 등 6개 분야 14개 업무까지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산림청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책 문서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사전공개를 점진적으로 추진, 오는 2015년에는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산림청은 아울러 올해 '등산로·숲길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산불위험 예보시스템 등 61개 정보시스템을 운

용해 얻은 53개 분야 데이터를 오는 2017년까지 시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구축한 '산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산불이나 산사태 등 안전 요소에 대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드림 락(Dream 락)', 직장인을 위한 '해피 락(Happy 락)', 노인들을 위한 '케어 락(Care 락)' 등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맞춰,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박정림기자 hal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장성군에 위치한 치유의 숲을 찾은 청소년들이 아토피 관리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드림 락(Dream 락)'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장성 치유의 숲에 산림치유지도사와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 13명의 인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 층간소음 저감제품 80% 효과 없어 바닥재·매트 등 중량충격음엔 '무용지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와 매트 80% 가까이 중량 충격음의 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바닥재 22종과 매트 16종 등 38종을 조사한 결과 매트 8종만 중량 충격음 저감 효과가 있었을 뿐 30종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매트 8종 중 20% 이상 소음을 낮춘 제품은 1종이었으며, 나머지 7종은 10~20% 미만이었다. 다만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 시간도 짧다. 반면 아이

들이 쿵쿵 뛰는 소리의 중량 충격음은 충격이 크고 지속 시간도 길다. 38종 중 층간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바닥재 4종·매트 10종 등 14종이었으나 바닥재 4종 모두 저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

했다. 매트 10종 중 8종은 10% 이상 저감 효과가 있었으나 광고하지 않는 제품보다는 평균 8%포인트 정도 높았다. 소비자원은 층간 소음 갈등은 대부분 중량 충격음 때문인데 제품 대부분은 중량 충격음에 대해 감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효과만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조사에 제품 광고 시 소음원의 종류와 감소 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기술 표준원에 층간 소음 저감 제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층간 소음 상담 128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때는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38.3%)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91.4%)가 대부분이었다.

/연합뉴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금매"

### 1층상가 - 25평

- ▶ 정문코너, 편의점 임대 중 (보3천만원에 월 125만원)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7,500만원

### 13층 - 오피스텔

- ▶ 53평, 주거겸 사무실
- ▶ 양동/하천쪽, 전체 올수리
- ▶ 시세 2억 5,000만원 정도
- ▶ 급매 1억 5,500만원

### 10층 - 오피스텔

- ▶ 29평,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전망좋은
- ▶ 시세 1억원 정도
- ▶ 급매 6,500만원

## 경매

- ▶ 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 비법 배우실 분! 1,200만원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엔피엘/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 회사 사정상 매매함

## H.010-4667-9300